

[사회]

“차라리 논·밭 팔고 싶다”

비료·농기계·기름값·인건비 등 22~28% 폭등 논값은 대폭 하락...영농철 전남 농촌 枯死 위기

본격적인 영농(營農)철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수입쌀이 식탁에 오르면서 소득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료와 농기계, 기름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까지 덩달아 올라 울상을 짓고 있다.

나주·영암·해남 등 전남지역 들녘에서 만난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되면 국내 쌀값이 최소 10% 가량 하락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벼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숨 짓고 있다.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값이 30% 이상 하락했는데, 더 떨어지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순군 능주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길현(50)씨는 “우리 마을(원지마을)에는 3~4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짓

겠다는 젊은이가 30여 명에 달했지만,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올해는 20여 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원지마을의 경우 평당 7만~8만원이던 논값이 요즘은 3만원으로 떨어졌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료와 농기계 등 농자재 값이 들쭉이 있는 것도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해 7천800원이었던 밀거름용 복합비료는 9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요소도 8천900원으로 7500원이나 올랐다. ‘쌀맛나’ 복합비료는 지난해 포대당 5천300원 하던 것이, 올 들어 6천800원으로 28%나 뛰었다. 비료 값이 오르는 것은 원재료인 요소·인광석·암모니아·염화加里 등의 가격이 30~60% 인상된 데다, 올해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인 ‘판매가격 차손 보전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경운기의 경우 10마력짜리는 지난해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트랙터는 1천410만원에서 1천48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농업용 면세유도 ▲휘발유가 8당 480원에서 590원으로 110원(22.9%) ▲경유는 520원에서 640원으로 120원(23%)이 인상됐다.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의 경우 가지치기 작업은 1일 10만원(성인 남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원 정도 뛰었으며, 4월 초부터 시작된 인공수분작업 여자 품값은 4만원(2005년 3만5천원)이나 된다.

곡성군 옥곡면 강길원(32)씨는 “5천여 평의 벼농사를 지으면서 한국석유공사의 경비 자리를 얻어 근무하고 있다”며 “주변에 부업을 갖는 농부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권기선(50) ‘활동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도 “이제는 벼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보다는 땅을 팔고 도시로 올라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논두렁 손질 하고는 있지만...

나주시 이창동 동곡리 들녘에서 민판중(75)씨가 못자리를 설치하기 위해 논두렁을 손질하고 있다.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판되면 쌀값이 더욱 폭락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나주=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농민들 수입쌀 入庫 반대시위 전환

여수신항 하역저지 실패 따라

‘광주·전남 농민연대(상임대표 배삼태)’는 16일 “여수 신항에서의 쌀 수입 하역 반대 집회를 중단하고 각 지역 쌀 저장창고 등에서 수입쌀 입고 저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수입쌀 불매운동 등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여수 신항에서 하역된 미국산 수입쌀 1만5천t 가운데 7천t은 광주·전남 지역으로, 나머지는 전북과 충남, 대전 지역 등으로 분산 출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농민 등 2천여명은 15일 오후 여수 진남관에서 ‘수입쌀 저지 민중대회’를 가진 뒤 신항 1 부두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한편 지난 11일 미국산 가공용 현미 1만5천t을 싣고 여수 신항에 입항한 흥흥 선적 ‘브라이트 스키’호의 하역은 이날 현재 5천t이 진행됐으며, 완전 하역까지는 10여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영산강 하구 습지 없어질라

영산강 하구 습지 면적이 지난 191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 습지 면적은 하구둑 건설과 농지 개발로 인해 1910년대 309km²(하구 면적의 20.24%)에서 2000년 73km²(4.78%)로 줄어 4분의 1 수준을 보였다. 섬진강 하구 습지 면적은 광양만 개발 등으로 인해 77km²(6.55%)에서 55km²(4.7%), 한강은 218km²(하구 면적의 4.96%)에서 191km²(35%)로 각각 감소했다.

하구 습지의 수산물 생산 기능·수질 정화 기능·서식지 기능·심미적 기능 등을 근거로 경제환경적 가치(편익)를 환산한 결과, 한강 하구 습지는 연간 7천337억원의 가치를 창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영산강 습지는 연간 461억원, 섬진강 습지는 919억원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강이 최고 16배 가량 높았다. 단위 면적(ha)당 경제적 가치는 한강이 연간 4천71만원으로 섬진강 2천473만원, 영산강 642만원에 비해 각각 1.6배, 6.3배 많았다. 하구 습지를 내륙과 해안지역으로 구분하면 연안 습지의 가치가 내륙 습지의 가치보다 한강 18배, 영산강 23배, 섬진강 14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립 등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하구 지역은 생태계 보전 및 풍부한 자연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가칭 ‘하구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성인들 검정고시 안봐도 초·중 학력 인정 길 열려

‘문자해독 교육’ 이수자 대상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초·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일선 학교 등에 개설되는 문자해독(문해 文解)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인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성인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학력 검증 절차를 거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학력 검증 절차는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수시로 시행되며 문해교육 이수자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성인들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초·중학교 학력을 충분히 갖췄더라도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고 시험 시기도 중입 검정고시는 1년에 1회, 고입 검정고시는 2회로 제한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군·구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70개 지자체를 선정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고 및 지방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선 초·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아학 등이다. 한편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은 241만명, 중졸 미만은 424만명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감기 조심 4월 17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서울	맑음	3~21℃
부산	맑음	4~18℃
대구	맑음	7~18℃
대전	맑음	3~19℃
전주	맑음	2~21℃
광주	맑음	1~20℃
제주	맑음	1~21℃
충청	맑음	1~21℃
경상	맑음	3~21℃
강원	맑음	-1~22℃
충남	맑음	3~18℃
충북	맑음	0~19℃
전북	맑음	2~21℃
전남	맑음	0~21℃
제주	맑음	2~2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4:20 썰물 < 09:30
여수 밀물 < 10:55 썰물 < 04:59

▲해돋이 05:59 ▲해질 19:06 ▲달출 22:58 ▲달짐 07:4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금)	23(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9/22	9/15	9/18	5/21	8/21	10/16

전남 일부지역 영하권

산간지방 때아닌 서리도

봄날, 전남 일부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산간지방에는 때아닌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쪽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7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며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순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되지만 초당 1~3m의 바람이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내륙지방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구직자 “내자녀 직업 교사 최고”

공무원-법조인 뒤이어 채용포털 커리어 설문

구직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구직자 1천431명을 대상으로 ‘가장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에 대해 물은 결과 35.8%가 ‘교사’를 꼽았다는 것이다. 그 뒤는 ▲공무원(29.3%) ▲

법조인(21.2%) ▲의료인(21.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혼인 구직자(779명)는 27%만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직업으로 ‘교사’를 들은 반면 기혼인 구직자(652명)는 46.5%가 ‘교사’를 선택해 기혼 구직자일수록 직업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34.6%) ▲친구(16.7%) ▲형제·자매(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패션모직 outlet 판매임구 시거리

패션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60~40% 할인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신발, 가방, 모자, 장갑, 액세서리, 안경, 소품까지 특가 판매

신발: 20~40% 할인, 가방: 10~30% 할인, 모자: 5~10% 할인, 장갑: 5~10% 할인, 액세서리: 5~10% 할인, 안경: 5~10% 할인, 소품: 5~10% 할인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구조물 침하, 균열, 변형 등 각종 문제 해결

신개념 공법 적용

구조물 침하, 균열, 변형 등 각종 문제 해결

신개념 공법 적용

구조물 침하, 균열, 변형 등 각종 문제 해결

신개념 공법 적용